

도교육청, 올해도 '2030교실' 중심 수업 대전환 박차

252개교 확대... '시간·언어 장벽 無' 작년 남극 장보고기지 'AI 정약용' 토론 교사 53팀 267명 12개국 공동수업 진행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주도성 수업'을 중심으로 전남 수업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아 30개, 초등 42개, 중등 35개, A1실 12개 등 119개의 2030교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성된 133개 교실에 더해 총 252개 2030교실이 운영되며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수업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2030교실은 2026학년도 전남교육의 1번 역점 과제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내 252개의 2030교실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에서 전남 교사 411명이 함께 준비한 90시간의 미래수업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로, 수업 대전환의 실천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구례북초등학교 2030미래교실교실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2030교실은 '시간·언어 장벽 없는 교실'과 '언어 장벽 없는 교실' 등 두 모델을 지향한다.

실제 화순오성초는 약 1만7천km 떨어진 남극 장보고기지와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고, 예당교

에서는 AI로 구현한 다산 정약용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을 운영했다.

전교생의 20%가 외국 국적인 삼호서초에서는 12개국 출신 학생들이 AI 기반 실시간 번역기술을 활용해 언어의 장벽 없는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제한 없는 배움'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수준 높은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30교실의 원동력은 현장 교사들의 열정을

꼽을 수 있다. 2030수업교사 212명은 교실 현장에서 수업 연구와 나눔을 실천하며 전남 수업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협력을 통해 수업을 설계하며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30교실은 국내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53개팀 267명의 교사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4개 대륙 12개국과 공동수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수업 역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2026학년도에는 도내와 국내, 국외로 더욱 세분화해 수업 교류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30교실 발전을 위해 정형화된 틀을 깨는 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 연구를 지원하고, 수업을 주제로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상하고 희망하는 수업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2030교실은 수업 변화의 산실이자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켄텍-태국 비스텍 MOU 국제 연구 협력 기반 확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비디아시리메디 과학기술원〉

동남아 에너지·기후 공동연구 협약 세미나·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추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태국 비디아시리메디 과학기술원(VISTEC·비스텍)과 에너지·기후 분야 연구와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나선다.

20일 켄텍에 따르면 최근 비스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연구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비스텍은 2015년 태국 국영 에너지 기업 PTT 그룹이 출자해 설립된 기관으로 에너지, 분자과학, 바이오, 정보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 수요 연계 연구와 소수 정예 교육 체계를 운영하는 점에서 켄텍과 유사한 교육·연구 모델을 갖추고 있다. 양 기관은 구조적 공통점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및 연구 분야

관련 정보 교류 ▲학생 및 연구자 교류 확대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연구 경쟁력과 글로벌 교육 협력 기반을 강화해 동남아시아 에너지·기후 분야 협력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함께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비스텍 피임차이 차이엔 총장은 "앞으로 연구·교육·인재 양성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확대해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의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 산업 기반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 기관이 상호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호남대-中 칭다오황하이대 인재 양성 '맞손'

한·중 교육 교류 활성화 등

호남대학교는 "최근 박상철 총장이 중국 칭다오황하이대응용기술대학 양효뢰 학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교 간 교류 협력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문단은 양효뢰 응용기술대학 학장을 비롯해 유예민 교육대학 부학장, 탄춘버 국제교류협력처 처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호남대에서는 박상철 총장과 이동우 학생처장, 진춘화 국제교류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간담회를 통해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 상호 파견, 전문대-학부 연계 과정 및 학부-석사 연계 과정 구축 등 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향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취업 지원 및 산학협력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호남대학교와 칭다오황하이대학교는 2021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며 한·중 간 교육 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욱기자

광주AI교육원, 토요 프로그램 운영

헬스케어·자율주행·로봇 등 7개 과정 12월까지 시민 누구나...수강료 무료

광주시교육청AI교육원은 오는 12월12일까지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 광주AI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경험하며 디지털 공간

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미래 기술을 누리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매일 지정된 토요일에 4회(회당 90분)에 걸쳐 진행되며, 총 운영 횟수는 26회다.

주요 과정은 ▲AI 탐험대 ▲헬스케어 ▲자율주행 ▲로봇제어 등 7개로 구성됐다. AI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진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며, 복잡한 AI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

게 배울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참여는 AI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받는다. 전월 접수 기종이므로 광주AI교육원 누리집(aikongeng.go.kr) 또는 AI교육부(02-519-0400)에서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최규남 원장은 "토요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AI의 가치를 체감하며 미래 역량을 키우는 열린 배움터가 될 것이다"며 "가족, 친구와 함께 미래 기술을 즐기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각 시·군 선착순 모집 ★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